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3월 교육 내용	04
☼ 3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3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3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3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3
☼ 위드 포토	54
☼ 3월 추천도서	56
☼ 3월 교육활동지	57
☼ 봄맞이 성경학교 포토존	60
☼ 3월 위드스티커	63



3월 교육내용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암송 구절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1)

♥첫째주♥

“선한 목자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1)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세요.**

♥둘째주♥

“한 알의 밀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셋째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넷째주♥

“다시 사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20)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실천 내용

1.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보기
2.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기

위드



3월 첫째주
2016년 3월 6일~12일



Memory Time



선한 목자 예수님

첫째주

- ♥ 주제 :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 ♥ 암송구절 “예수님: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분” ▷요한복음 10:11
- ♥ 성경 이야기 : 선한 목자 예수님 ▷요한복음 10:7-12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절)
- ② 선한 목자와 삯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11-12절)
* 삯꾼: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

★ 교육 활동 - “선한 목자 그리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려주세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 주제 :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 암송구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1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선한 목자 예수님 ▷요한복음 10:7-1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모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까요?

Pray 우리의 선한 목자되어주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생명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말씀
본문

누가복음 23:13-19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 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놓고서,
- 14.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 15.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 16.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 17. 없음
- 18.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 19.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 * 오도 : 그릇된 길로 이끌.
- * 신문 :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 말씀 속으로 ★

1.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누구를 놓아 주라고 했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보세요. (18-19절)



★ 삶 속으로 ★

빌라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척했던 적은 없나요? 사람들의 시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21.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22.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यो?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23.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 말씀 속으로 ★

1.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큰 소리로 무엇을 요구 하였나요? (21절)

“그 자를 에 못박으시오!”



★ 삶 속으로 ★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결국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가두었던 바라바는 풀려났고, 아무런 죄도 없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시선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늘 하나님께 물으며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27.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28.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29. 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30. 그 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31.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뒤를 따라갔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26절)

구레네 사람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 뒤를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곧 죽으실지도 모를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보며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욕심내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본문

누가복음 23:32-33, 39-43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2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33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39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41 "우리가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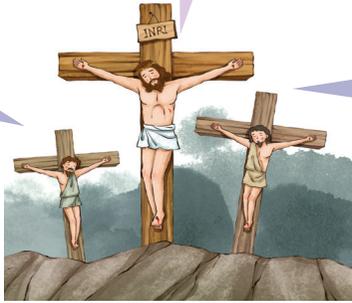
42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말씀을 읽고 다음 그림의 말풍선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말해 보세요.
(39-43절)



★ 삶 속으로 ★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 옆에 함께 매달렸던 죄수만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행동을 보며 그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도 기억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죄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요한복음 10:11



유크드



3월 둘째주
2016년 3월 13일~19일



Memory Time



한알의 밀알

둘째주

- ♥ 주제 :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 ♥ 암송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 ♥ 성경 이야기 : 한 알의 밀알 ▷요한복음 12:24-26 4:8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한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 ②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나요? (24절~26절)

★ 교육활동 -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 ▣ 함께 ‘작은 제자’를 불러보며, 찬양의 가사처럼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 주제 :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 ♥ 암송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한 알의 밀알 ▷요한복음 12:24-26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진 후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아야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귀한 열매 맺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ray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누가복음 23:44-49 “숨지신 예수님”

44 어느덧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47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48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49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 말씀 속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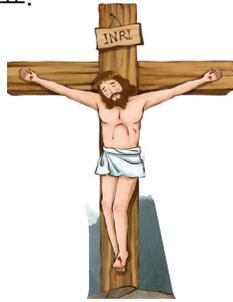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을 읽고 알맞은 말에 O, 맞지 않는 말에 X 표시 하세요.
- 어둠이 온 땅에 덮였어요. ()
- 해가 환하게 비추었어요. ()
- 성전의 휘장이 12갈래로 찢어졌어요. ()
- 백부장은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어요. ()
2.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46절),

--	--	--

내 영혼을

--	--	--

손에 맡깁니다.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백부장의 말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어요.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오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외쳐 보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감사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감사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제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50-56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

50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51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53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54 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55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56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 공의회 : 법적, 종교적인 일을 토의하기 위해 모이는 것

* 향료 : 액체로 된 방향제

* 향유 : 향이 나는 기름

★ 말씀 속으로 ★

1.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말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 ① 공의회 의원
- ② 착하고 의로운 사람
- ③ 예수님을 모른척 한 사람
- ④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 삶 속으로 ★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후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 일을 지켜본 여자들도 집에 돌아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드림을 기뻐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1-8 “살아나신 예수님”

- 1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 2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 3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 4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 5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 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 7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 8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 말씀 속으로 ★

1.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는 여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6절)

그 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	--	--	--	--



★ 삶 속으로 ★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사흘 때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었어요. 비록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야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있는 제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본문

누가복음 24:9-12 “부활의 소식을 알린 여자들”

9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 말씀 속으로 ★

1.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 중 누구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나요?



2.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보세요.

★ 삶 속으로 ★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 말을 어처구니없는 말로 여기며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과 삼베를 직접 보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보고,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이예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해요.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요.

부
모
님
과
함
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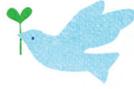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요한복음 10:11



유크드



3월 셋째주
2016년 3월 20일~26일



Memory Time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셋째주

- ♥ 주제 :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 ♥ 암송구절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이사야 53:5
- ♥ 성경 이야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사야 53:4-6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말씀을 보고 다음 단어들을 “예수님”과 “우리” 중에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

우리

찢림 허물 상함 죄악 징계 평화 채찍 나음

★ 교육활동 - “미디어 금식 선언식”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로 다짐해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 ♥ 주제 :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 ♥ 암송구절 “그가 짚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사야 53:4-6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받은 고통과 슬픔은 모두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악함과 허물 때문에 고통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요.



Q 1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가족이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Pray 우리 가족이 고난 주간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누가복음 24:13-17 “길 가는 중에 만난 분”

13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 말씀 속으로 ★

1.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삼십리 떨어져있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나요?(13절)



★ 삶 속으로 ★

엠마오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는 너무 많이 슬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여전히 슬퍼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그로인해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18-24 “예수님과의 대화”

18 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 말씀 속으로 ★

1.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나요? (21절)

“...이스라엘을 하실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 삶 속으로 ★

예수님의 소식은 당시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서 유명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 보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은 바로 앞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25-27 “예수님의 가르침”

2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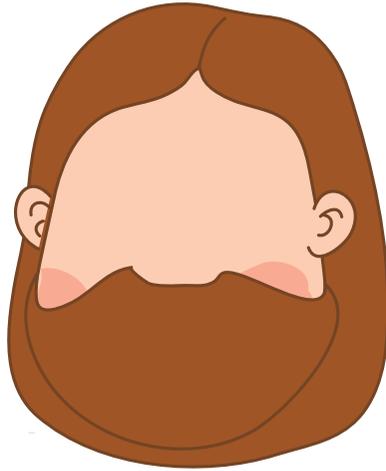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6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 말씀 속으로 ★

1.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자유롭게 표정을 그려보세요.



★ 삶 속으로 ★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예언들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책망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가르쳐주셨어요. 쉽게 말해 성경공부를 한 것이죠! 우리도 성경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29-35 “눈이 열리다”

29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4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1절)

그들의 이 열려서, 를 알아보았다.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며 빵을 떼어주셨어요. 마치 제자들과 지내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예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을 받아 든 두 사람은 마침내 그동안 자기와 함께 길을 걸었고, 성경말씀을 가르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 하는 제자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요한복음 10:11



유크드



3월 넷째주
2016년 3월 27일~4월 2일



Memory Time



다시 사신 예수님

넷째주

- ♥ 주제 :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 ♥ 암송구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요한복음 20:20
- ♥ 성경이야기 다시 사신 예수님 ▷ 요한복음 20:19-23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19절)

- ②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20절)

★ 교육활동 “부활절 달걀 꾸미기”

- 가족과 친구들에게 부활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Sweet Time

가족과 함께하는



- ♥ 주제 : 예수님 :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 ♥ 암송구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20
-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다시 사신 예수님 ▷요한복음 20:19-23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 지어다” 선포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Q 1 우리 가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Pray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누가복음 24:36-40 “열 한 제자를 찾아오심”

36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37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이 열 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6절)

“너희에게 가 있어라”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열 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곧 바로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줄 알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평화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날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41-44 “말씀을 이루셨어요”

41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42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43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셨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을 접시 위에 그려보세요.
(42절)



★ 삶 속으로 ★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셨고,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45-49

“증인이 되어요”

45 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47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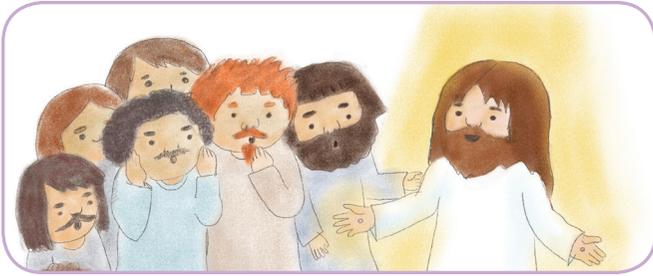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 말씀 속으로 ★

1.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셨나요? (48절)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열 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길 소망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50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 51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3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 말씀 속으로 ★

1. 제자들은 축복해주시고 떠나가시는 예수님께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2.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나요?(53절)



★ 삶 속으로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3년 동안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쉬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제자들은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말씀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일주일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에서 깨는 아침에 곁에 계세요.
2. 친구를 잠에서 깨우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축복과 기도를 해주세요.
3. 가능한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세요.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조심스레 안아주시며 굿모닝 인사를 해 주세요.
친구가 좋아하는 찬양을 조용하게 불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가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또는 앉아서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속상한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 주세요.
또한 매일매일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아, 오늘도 힘내!” 하고 속삭여주세요.

bed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을 청하는 순간에 곁에 계세요.
2. 잠을 청하는 친구 곁에서 다음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3. 친구를 안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자녀와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에게 오늘, 또는 한 달 동안 가장 힘들고 속상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질문 해봅니다. 지금은 괜찮은지,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는지 등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부모님 또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면, 자녀와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활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합니다.

자녀의 기도가 마치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수고롭게 하루를 마쳤습니다.

순간 순간 ○○이의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길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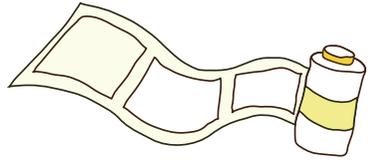
예수님이 항상 ○○이와 함께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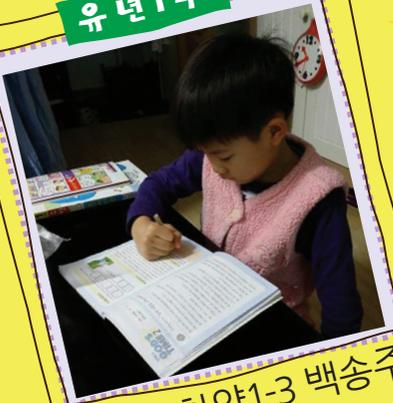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인사해주세요.

위드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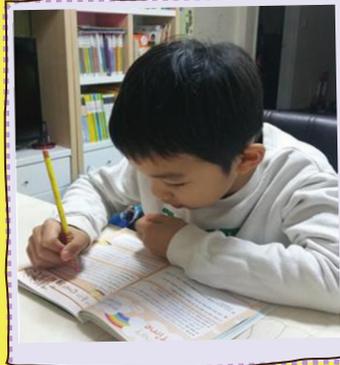


유년1부



찬양1-3 백송주

유년1부



찬양2-2 김선우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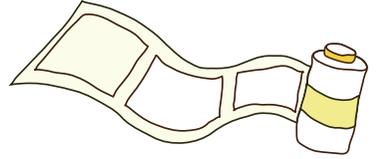
찬양 2-3 이주안

유년1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 포토
많이
보내주세요

유년의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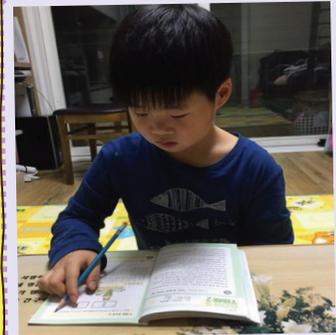


유년2부



1-13 문소윤

유년2부



2-1 금지호

유년2부



2-13 황우주

유년2부



2-15 백승재





3월

제목 : 너는 특별하단다

글 : 맥스 루케이도

그림 : 세르지오 마르티네즈

옮긴이: 아기장수의 날개

출판 : 고슴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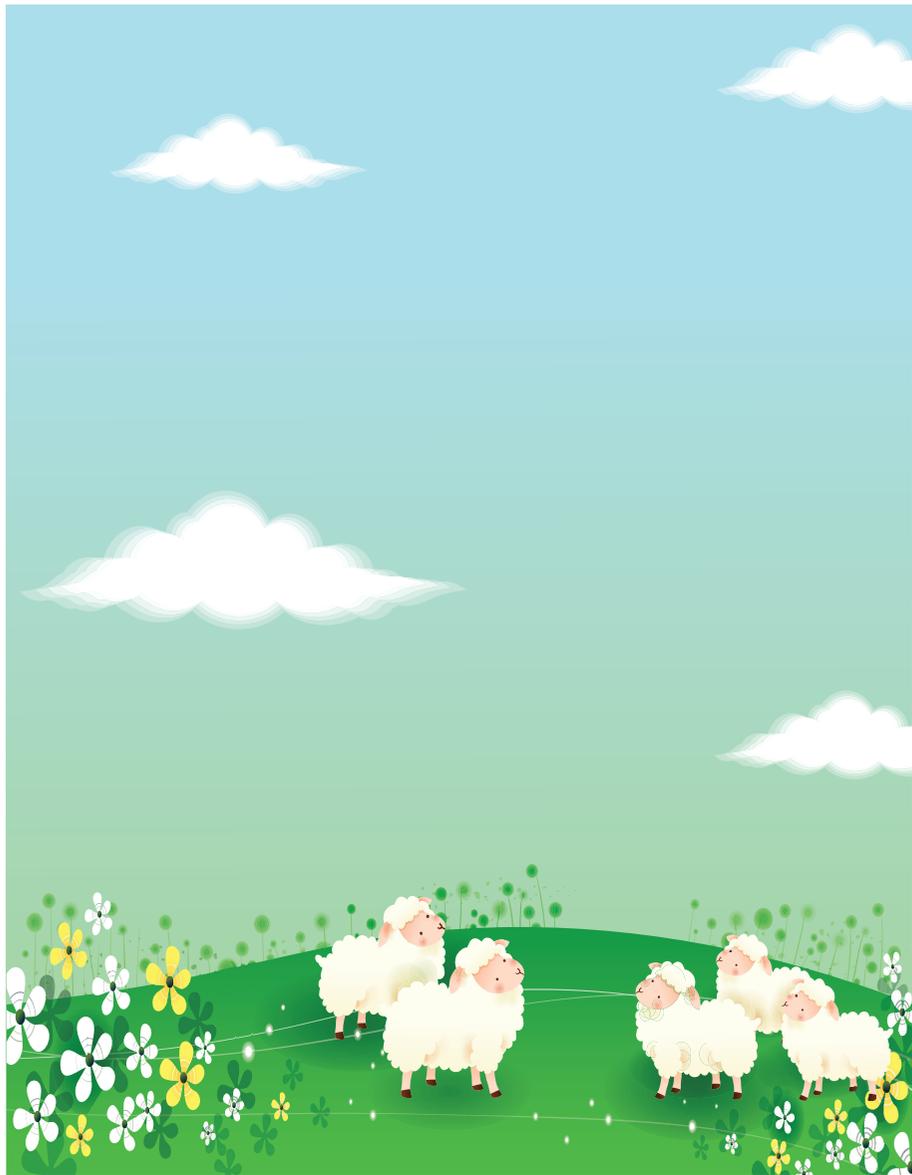


엘리는 목수 아저씨입니다. 엘리는 저마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웹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들지요.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한 목수 엘리가 만들었고, 웹믹들은 모두 한 마을에 같이 살았답니다. 그런 웹믹들에게 날마다 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들은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다니며, 서로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였답니다. 별표는 자랑거리였지만 점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펀치넬로는 점표를 많이 붙인 웹믹 중에 하나였습니다. 칠도 벗겨져 있고, 재주도 잘 넘지 못하고, 멋지지도 않죠. 그렇게 해서 늘어난 점표를 보고 다른 웹믹들은 더욱 더 점표를 붙였답니다. 그런 펀치넬로 앞에 천사처럼 루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지요. 웹믹은 표정은 물론 모습까지 우리 인간을 닮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다양해요. 웹믹이 서로 서로에게 내리는 평가까지도 우리를 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수군대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어떤 이는 기뻐하고, 어떤 이는 좌절하기도 하지요.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그리고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싶다는 저자의 의도처럼 이 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하나를 사랑으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남들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교육활동지

첫째주(3월6일)

“선한 목자 그리기”



“나는 예수님의 제자”

작은 제자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뱀어내고

작은 걸음 땔 때마다 주의



보여주리



봄맞이 성경학교 포토존



찬1-2 김현민 (1부)



찬2-2 이윤지 (1부)



1-8 김준영 (2부)



1-9 마예빈 (2부)



1-15 조예린 (2부)



2-1 금지호 (2부)



2-1 김하준, 2-13 김준수 (2부)



2-6 박예은 (2부)



2-6 박예은, 하주영 (2부)



2-12 조은서 (2부)



2-13 조현준 (2부)



2-13 한예은 (2부)



2-14 박서희 (2부)



2-14 양예은 (2부)



2-15 민주은, 박수빈 (2부)



2-14 이성혁 (2부)

STICKER 3월



Bible study! 학년 반 이름: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